

프린팅코리아 선정

2008 인쇄계 10대 뉴스

인쇄문화산업진흥법 발효 · 출판인쇄과 설치



제4장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지난 1월 20일자로 발효됐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를 중심으로 2006년부터 법제정을 추진해 김재윤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여야 국회의원 40명 공동 발의)로 2007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은 인쇄에 관한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한편 동 법의 근거에 따라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출판인쇄과가 설치돼 인쇄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소됐다.

인쇄용지 등 원부자재 가격 큰 폭 올라



인쇄용지와 잉크 등 인쇄원부자재 가격이 지난 1년간 가파르게 올라 인쇄업체들이 비명이다. 인쇄비는 제자리인데 원자재 가격이 지난 1년간 40% 내외가 올라 이대로라면 도산업체가 속출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다. 인쇄용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인상분만큼 인쇄업체들이 고객에게 청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 인쇄원부자재 가격도 크게 상승되었고 여기에 경기불황까지 겹쳐 인쇄업체들은 한마디로 사면초가다.

환율 및 유가 상승으로 인쇄용지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가격인상에 인쇄인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제지사들은 "펄프가 전체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 되는데 지난 2005년 당시 350달러였던 펄프 값이 올해 840달러가 되는 등 펄프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제지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사실상 과당경쟁, 출혈경쟁이 심한 시장 구조다"라고 주장했다.

제지사들의 이같은 주장이 어느정도 인정되지만 인쇄사들은 90%가 영세한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어 원부자재 가격의 갑작스런 폭등에 대비할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주산업의 특성상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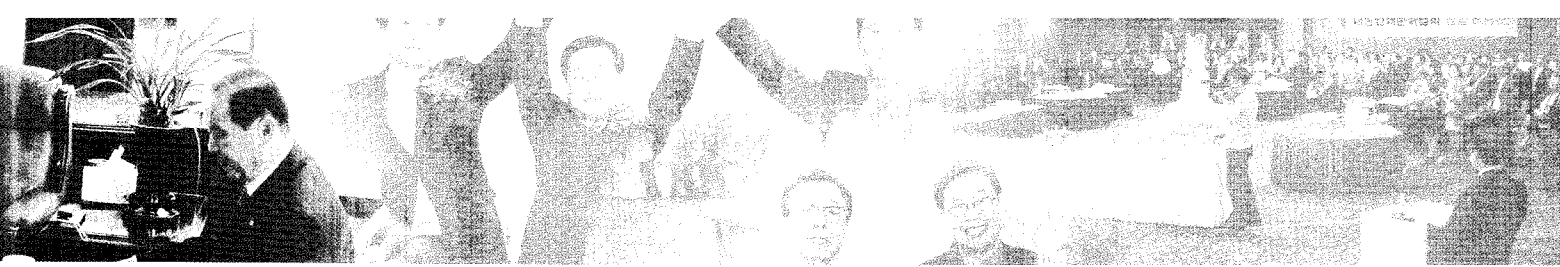
제지업체와 인쇄업체는 상생공존의 관계가 틀림없다. 따라서 대기업들인 제지사들이 하루빨리 영세 인쇄업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

한솔그룹 인쇄업 진출... 인쇄계 강력 반발



한솔그룹이 계열사인 한솔텔레콤을 통해 종이로 박스 등을 만드는 패키징 사업에 진출해 인쇄업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한솔그룹은 지난 5월 15일 한솔텔레콤이 중소인쇄 업체인 대영인쇄사의 포장사업 및 관련 자산을 40억원에 인수하고 사명을 '한솔피앤에스(PNS)'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인쇄업계는 한솔제지의 인쇄업 진출에 강력 반대했다.

이와 관련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는 5월 16일 중



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청에 한솔그룹의 인쇄업 진출 저지를 위한 사업조정 신청을 하는 한편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강력히 대처기로 했다. 한솔그룹의 인쇄업 진출 소식이 알려진 지난 2007년 인쇄단체장들이 한솔제지를 방문, 인쇄업 진출반대 의견을 전달하자 한솔제지의 경영진은 인쇄업계의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협력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인쇄단체에서는 8개사를 추천한 바 있는데, 갑자기 한솔그룹이 텔레콤을 이용해 대영인쇄를 인수키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한솔그룹이 인쇄업 진출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솔제지 종이 불매 운동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인쇄단체 공동명 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 등 관련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쇄협회 · 연합회장에 홍우동 · 이충원 사장 당선



인쇄 양대 단체인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에 홍우동 동국문화 대표이사가,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에 이충원 선문사 사장이 각각 경선을 통해 당선됐다.

대한인쇄문화협회는 2월 15일 PJ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원종철 삼원인쇄(주)대표이사와의 경선을 통해 홍우동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연임에 성공한 홍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인쇄문화인으로서 인쇄인의 위상제고와 업계 공동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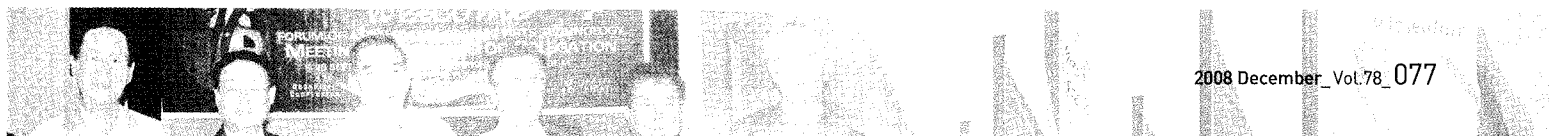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도 지난 2월 27일 엠버서더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이충원 선문사 사장과 고수근 전광인쇄정보 사장의 경선을 통해 이충원 회장을 임기 4년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충원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새시대 전국 인쇄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 성료



'2008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이 2008년 9월 18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김정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정두언(한나라당)·변재일(민주당)·김재윤(민주당)국회의원,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노영현 한국잡지협회 회장, 양철우 교학사 회장, 김종규 박물관협회 명예회장, 민재기 대한인쇄문화협회 명예회장, 채복기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회장, 허철중 대한인쇄문화협회 전회장, 최창근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회장,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조정석 서울특별시인쇄정보조합 이사장, 고수근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 김진배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회장, 오규남 한국인쇄학회 회장, 심응선 인천인쇄정보조합 이사장, 노길용 부산인쇄정보조합 이사장, 박희준 대구경북인쇄조합 이사장, 이완표 경기도인쇄정보조합 이사장, 구자빈 대전충남인쇄정보조합 이사장, 강규진 제주도인쇄정보조합 이사장, 김충진 한국전주추직자협회 회장 등 귀빈 및 전현직 단체장, 김국 은성정밀인쇄(주) 대표이사 등 정부포상 및 인쇄문화대상 수상자, 인쇄 및 관련업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은 대한인쇄문화협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국 은성정밀인쇄(주) 대표이사가 포장, 김충용 (주)한성실업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 김영철 두성칼라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 강규진 선진인쇄사 대표 · 이강호 제일사 대표 · 김삼식 고려문화 대표 · 임인영 성광기획인쇄 대표 · 위성진 We프린팅코리아 대표 · 채명훈 삼성인쇄(주) 대표이사 · 정희호 (주)성도지엘 전무이사 · 장선운 고문당인쇄(주) 대표이사 · 김인호 동양상사지기인쇄 대표 · 김진해 두산원색 대표 · 장세훈 송죽문화사 대표 · 정진섭 유진피앤비 대표 · 원종성 (주)상원원색 대표 이사 · 이광식 한국전선홀(주) 제작이사 · 김연태 태창문예사 대표 · 도경수 (주)해머마트 대표이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조정석 (주)대원문화사 대표이사가 인쇄문화대상 경영부문, 이재환 태양씨앤피 대표가 인쇄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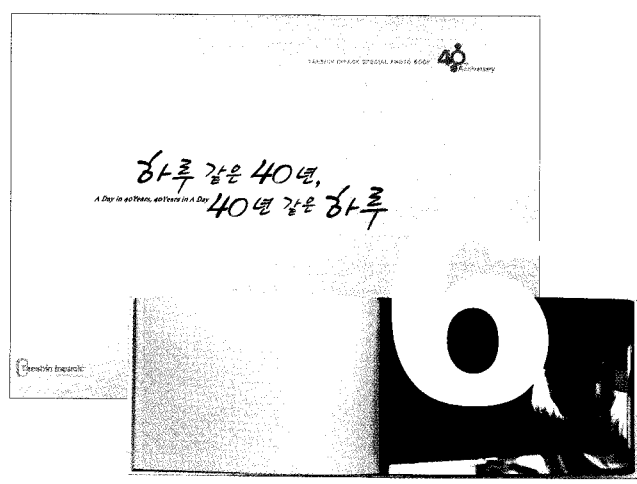
하루 같은 40년, 40년 같은 하루



프린팅코리아 선정

대상 기술부문, 홍종진 배첩장(무형문화재)이 인쇄문화대상 특별부문, 김상대 (주)성도지엘 대표이사가 인쇄문화대상 진흥부문 상, 한행수 (주)두산동아 반장이 직지사장, 강선구 명성길라 인쇄실장 등 20명이 대한인쇄문화협회장 상을 각각 수상했다.

서울조합, 서울인쇄대상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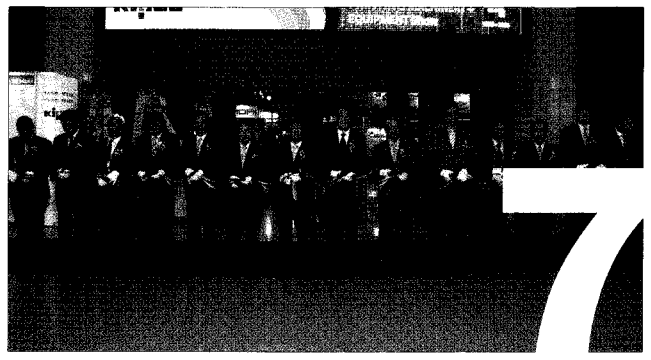


서울지역 인쇄업체들의 정보교류와 해외수출 등을 지원하는 서울인쇄센터(이사장 조정석)에서는 도심형산업인 인쇄산업을 서울시민에게 홍보하고 국내 최초의 인쇄물 품질평가를 통해 인쇄기술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3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가 '생활 속 인쇄'란 주제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서울광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재단법인 서울인쇄센터와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동국대학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인쇄문화협회,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대한인쇄연구소가 후원했으며 삼원 페이퍼 갤러리, 흥보검, 캐논, 청주 고인쇄박물관의 전시물 협찬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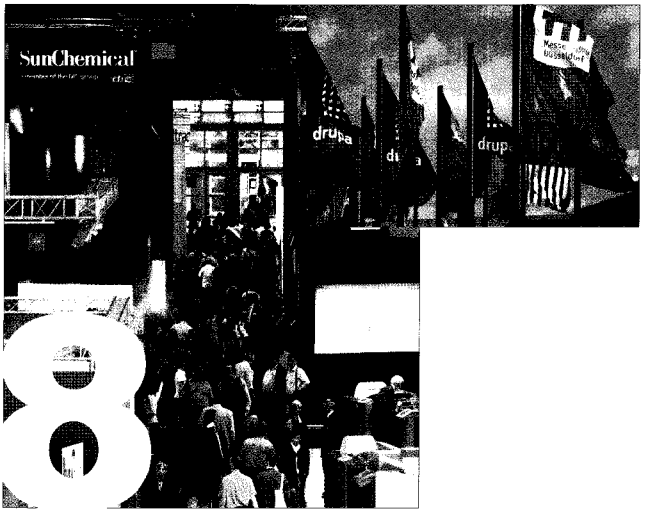
서울인쇄대상 수상작은 ▲대상 : 하루 같은 40년, 40년 같은 하루(주)태신인택 서명현) ▲금상 : 꾸밈과 갖춤의 예술, 장황(주)중앙문화인쇄 유영호), 삼성전자 모바일 액세서리 2008(해외수출용 브로슈어)(정민프린테크 서병기),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주)피알앤박스 정장호) ▲은상 : 개역개정 큰글성경(청아문화사 김남수), 극동건설 브로슈어(주)삼성문화인쇄 조영승), 백년화편 떡 세트(은성정밀인쇄(주) 김 국) ▲동상 : 엘르 데코레이션 한국판(주)대한고교과서 김창식), 한국미술속의 문자-포토다이어리(한영문화사 홍사룡), 거북이(주)흥보검 이광옥) ▲입선 : 정동 역사의 뒀안길(상원사 조상기) 외 22점 등이다.

키페스 및 국제인쇄컨퍼런스 열려



우리나라 미래인쇄를 한자리에서 조망해 볼 수 있는 국제인쇄산업전(KIPES2008)이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한인쇄문화협회와 한국이앤엑스의 공동 주최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국내외 25개국에서 출품한 357개의 제조사들이 자사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18,054㎡ 규모의 전시장에서 선보임으로써 최신의 인쇄기술을 주도하며 관련 산업의 기술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KIPES 2008 전시 기간 중에는 약 30여회 이상의 인쇄관련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특히 대한인쇄문화협회 창립 60주년과 KIPES 3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한국 외에 중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인쇄산업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인쇄미래 보여준 '드루파 2008' 성료





2008 인쇄계 10대 뉴스

미래 인쇄기술을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는 인쇄기자재전시회인 '드루파 2008'이 2008년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는 디지털로 대표되는 신제품과 신기술이 대거 출품되면서 미래 인쇄를 가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드루파 2008은 전 세계 1800개 업체가 참여하고 17만㎡ 이상의 전시면적에 40만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 인쇄인도 1200여명이 참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시장 규모도 디지털 시장의 확장에 맞춰 8a홀과 8b홀이 디지털 전용홀로 확대되어 관련 제품들이 전시되었다. 하이델베르크 등 주요 인쇄기기 메이커들이 대부분 출품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엠피를 비롯한 10여개 업체가 자체 부스를 마련해 홍보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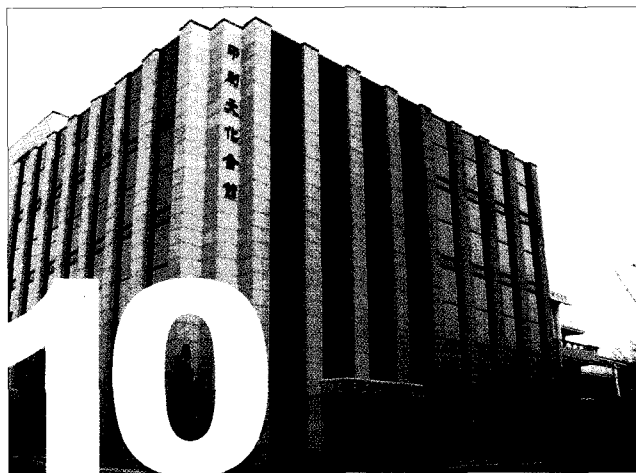
한편 이 자리에서 이종원 한국 측 대표는 각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쇄교육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해 나감으로 아시아 인쇄산업 발전에 기초가 되는 인력 양성에 함께 기여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번 포럼에서 회원국들은 각각 인쇄산업의 글로벌화와 인쇄공정의 표준화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오세 및 코닥은 인쇄산업에 있어 디지털 인쇄분야의 발전 및 동향에 대한 발표를 했으며 아시아프린트미디어컨설턴스그룹이 글로벌 인쇄산업과 연관된 IOS12647 표준화에 대해, 사푸라이미징이 아시아 인쇄시장의 경향과 이슈, 그리고 도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아시아인쇄기술 포럼 필리핀서 개최



2008년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필리핀 소피텔 필리핀 플라자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시아인쇄기술포럼(FAGAT)'에 이종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조정석 서울인쇄정보조합 이사장, 최창근 한성인쇄 회장(전 인쇄연합회장), 소병식 인쇄연합회 전무이사 등이 참석하고 현지 업계를 시찰했다. 이번 아시아인쇄기술포럼에는 주최국을 비롯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일란드, 스리랑카 등 9개국에 참가했으며 다음 포럼은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포럼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 적극적인 FAGAT 활동을 위해 회장 및 사무국장을 선출키로 하고 초대 회장으로 일본 JAGAT의 료이치야마우치(Ryoichi Yamauchi)씨를 선출했으며 내년 FAGAT2009의 개최국인 일본에서 FAGAT의 사무국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했으며 사무국장의 경우 FAGAT의 주최국에서 자동으로 맡아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인도, 버마 등 4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FAGAT의 공식 회원국은 13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인협 창립 60주년 맞아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가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1948년 인쇄인들의 중심적 역할을 위해 설립된 대한인쇄문화협회는 그동안 인쇄인들의 권익보호와 위상제고, 수출증진,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해 인쇄문화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의 제정과 직지심체요절의 국내외 순회전시, 국제교류, 인쇄기자재전시회 등을 개최해 문화적인 측면과 산업적 측면에서 인쇄문화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인쇄문화의 날을 제정, 매년 정부포상과 인쇄문화대상, 직지상을 시상하고 있고 인쇄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매년 신년인사회를 주관하고 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올해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인쇄의 미래비전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